

# 김진균 “임중도원 마음에 새기고 새 역사 써내려 가자”

〈任重道遠 : 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 Sh수협은행장 취임

“은행 사명, 어업인·조합 지원 수산 정책자금 적기 공급할 것” 효율성 제고 등 7개과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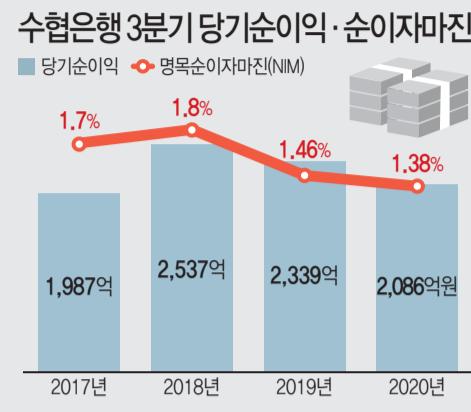
“책임은 막중하고 갈 길은 멀다라는 ‘임중도원(任重道遠)’을 마음에 새기고 수협은행을 이끌어 나가겠다.”

Sh수협은행의 김진균호(號)가 본격 출범했다. 김진균 행장은 11일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수협은행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자”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행장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수익창출 기반을 확대하고, 어업인과 회원조합 지원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협은행의 사명은 어업인과 회원조합의 지원”이라며 “수산 정책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 회원조합 지원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협은행의 지속 성장을 위해 7가지



## 수협은행 공적자금 상환 현황

공적자금	1조1,581억원
2016년	-127억원
2017년	-1100억원
2018년	-1320억원
2019년	-501억원
합계	-3,048억원
남은 공적자금	9,034억원



김진균 신임 Sh수협은행장이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오금로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Sh수협은행

중점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조직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수익창출 능력 배가 ▲디지털금융 경쟁력 강화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고객중심체제 구축 ▲노사 관계의 소통과 협력 ▲어업인과 회원조합 지원 등이다.

김 행장은 “지난 57년간 수많은 역경과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다”며 “한층 더 발전한 수협은행을 만들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 저력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행장이 해결해야 할 최

우선 과제는 ‘실적 개선’이 될 전망이다. 실적개선을 통해 공적 자금 상환 시기를 하루 빨리 앞당겨야 수협은행이 어업인 지원 등 해양수산 전문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수협중앙회는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공적 자금 1조1581억원을 지원 받았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이 배당한 금액으로 공적 자금을 상환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은 총 3048억 원으로 오는 2028년까지 8533억원을 갚아야 한다.

서 2019년 1.46%, 올해 3분기 (1.37%)로 감소했다. 순이자마진은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자수익에서 이자비용을 뺀 순이자마진은 이자수익자산으로 나눠 계산한다.

때문에 디지털 금융분야를 강화해 비이자 수익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문화확산 추세에 맞춰 좀 더 쉽고 편리한 웹 모바일 서비스로 외환, 방카슈랑스, 펀드, 카드, 신탁 등 사업부문의 수익을 늘려야 한다는 것.

수협은행의 지난해 상반기 수수료수익은 583억원으로 2017년 485억원, 2018년 532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이자수익에 비해서는 지난해 기준 4%에 불과한 수준이다.

김 행장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 이익이 결과적으로 은행의 이익이 되는 고객 중심적 순환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배달대행 라이더 전용 체크카드 발급 추진

### 신한銀-신한카드-스파이더크래프트 특화 금융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신한카드, 배달대행 스타트업 스파이더크래프트와 배달대행 라이더 대상 특화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각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영업점 내점이 어려운 라이더를 위한 비대면 급여계좌 개설 및 소속 라이더 전용 체크카드 발급을 우선 추진한다. 향후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해 라이더 특화 금융서비스를 추가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배달대행 라이더와 같은 특수 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건전한 소비문화 확립 및 금융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스파이더크래프트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신한은행 강남본부 이승렬 본부장과 스파이더크래프트 유현철 대표, 문지영 대표, 신한카드 경인본부 김효정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유형별 사고 분류, 과실비율 이해 돋는다

손보협, 분쟁 226건 담은 사례집 발간

보험 과실비율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과실비율 분쟁 건수는 2017년 6만1406건에서 2018년 7만5597건, 2019년 10만2456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2017년부터 2019년 까지 3년간 과실비율 분쟁 총 226건을 정리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

현재 협회는 과실비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또 과실비율 분쟁 건수를 줄이기 위

해 과실비율 정보 포털(앱) 운영, 신규 과실비율 인정기준 마련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분쟁 심의사례집은 보험 소비자가 보다 쉽게 과실비율을 이해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주요 사고유형별로 사고를 분류하고 사고 양 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과실비율 결정의 근거를 상세히 담았다”고 말했다.

협회는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서비스 사용이 늘면서 오토바이와 자동차 간의 사고·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례집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동일차로에서 달리 급격한 진로변경이나 주월 등으로 사고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나유리 기자

## 온라인마켓 자금회전 지원 상품개발 맞손

### 신한은행-KCB ‘통합선정산대출’

신한은행은 온라인마켓 입점 판매자(셀러)의 빠른 자금회전을 지원하는 신상품 ‘통합선정산대출’ 개발을 위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KCB로부터 신뢰성과 정합성이 높은 온라인 마켓 판매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판매자(셀러)가 거래하는 여러 온라인마켓의 판매 대금 정산 예정금을 한꺼번에 선정산 받을 수 있는 통합선정산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다음달 출시 예정인 통합선정산대출은 최대 두 달 이상 소요됐던 온라인 마켓 판매자의 자금정산을 물품 배송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KCB사옥에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신한은행 기업부문 신연식 부행장(오른쪽)과 KCB 한창래 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완료 다음날에 앞당겨 지급해 소상공인의 단기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안상미 기자

### KB금융그룹

## 23개 기관 연합체 출범 플라스틱 줄이기 나서

KB금융그룹은 11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 T타워에서 환경부와 서울시, SKT, 스타벅스코리아 등 총 23개 기관 및 기업과 함께 일상 생활의 환경보호 실천 및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위한 연합체인 ‘해빗 에코 얼라이언스(habit eco alliance)’ 출범식을 가졌다.

해빗 에코 얼라이언스는 일상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착한 습관을 정착시키고,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연합체다. 정부 및 지자체,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 등 민·관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한다.

/안상미 기자

금융전문지 ‘인포뱅크 매거진’ 선정

우리은행은 우리소다라은행이 인도네시아 금융전문지 인포뱅크 매거진(InfoBank Magazine)의 2020년 은행평가에서 ‘25년 연속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인포뱅크 매거진은 1979년 창간해 매년 인도네시아 모든 은행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부문별 우수은행을 선정하는 인도네시아 금융 분야 최고 권위의 매체다.

우리소다라은행은 ▲안정적인 수익성 및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경영실적 향상 ▲우수한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25년 연속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된 은행은 인도네시아 시중은행 중 우리소다라은행이 유일하다.

최정훈 우리소다라은행 법인장은 “이번 수상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대한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 좋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소다라은행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과 인도네시아 은행인 소다라은행이 합병해 새롭게 탄생한 은행이다.

/이영석 기자 ysl@



최정훈 우리소다라은행 법인장이 인포뱅크 매거진에서 수여한 ‘25년 연속 최우수 은행’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